

선교매트릭스

독서감상문 TMTC 15기 조정은

이 책은 선교의 다양한 측면을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단기 선교여행 파트가 인상적이었는데 단기선교여행이 그것을 떠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훈련의 장을 활용되기 보다는 교회의 영적부흥을 일으키기위한 수단으로 선교가 활용되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선교에 임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또한 단기 선교여행에 대한 몇가지 주의 사항과 새로운 관점의 단기 선교여행에 대한 제안을 하셨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역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시행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도권을 현지인에게 주는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둘째, 단기 선교여행을 선교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선교에 경험 혹은 동참하는 것의 그것 자체로 훌륭하지만 선교여행후에도 선교기도모임 등을 운영하면서 비거주 선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단기 선교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울수 있도록 사전에 선교학교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도자가 사전에 선교지를 답사하는것도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넷째, 단기 선교여행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단기선교여행 팀원중의 하나를 서기로 세워 준비 단계부터 돌아올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하여 기록물을 만들어 내거나 기록물을 자성해 놓는다면 이는 다음 선교여행 팀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장기 선교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장기선교사와 소통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멤버를 케어하는것이며 단기선교여행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한다.

여섯째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해외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강의나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여행에 참여한다.

일곱째, 단기 선교여행의 기회를 계속 얻는 것이다. 매번 다른선교지로, 또는 한곳으로 매년가서 그곳에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배우는데 초점, 여러번 가게되면 현지에 꼭 필요한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단기선교여행을 갔던 10년전이 다시 떠오르면서 선교사님이 제안한 6가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다. 키워드를 정리하면 연구중심, 선교이후 프로그램, 선교여행준비, 선교여행기록, 장기선교사 존중, 위기관리, 지속적 단기선교이다. 단기선교를 다시 떠나게 된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나야 할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부분이 많아 인상적이었다.